

“미술자료의 정리는 한국미술계의 밑거름입니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근현대미술인 정보를 집대성한 《한국미술인명록 I》을 발간했다. 186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

생한 작가 4,254명과 40세 이상 비창작 분야 인사 655명, 총 4,909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작가의 경우 인구가 매우 방대한데 수록 기준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인명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미술인을 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작

고작가는 장르의 구분 없이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다. 작고작가는 그 연배사람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술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만다. 모두가 당대에 의미있는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다. 밤하늘의 별 중에는 1등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있지만 그 주위에 무수하게 깔려있는 별도 있다. 그 별들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더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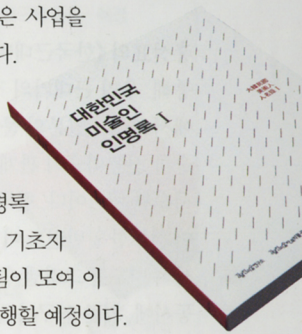
인명록의 보완작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책 제목에 ‘I’을 붙인 것은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작업을 해나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세부 장르도 추가할 것이고, 작가 나이대도 30~40대까지로 넓힐 것이다. 또한 작가에 대한 서술, 대

표작 등을 넣어 인명사전으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의 계획은? 표준화된 미술자료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미술인의 약력뿐 아니라 사진, 비도서, 필름 등 다양한 미술자료를 관리하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미술관, 비엔날레 재단, 미술대학, 작가 등에 보급시키면 네트워크가 가능해 미술계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을 개인이 추진하기는 힘들다.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조만간 이번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발간에 참여한 한국미술 기초자료 구축 및 활성화 사업팀이 모여 이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포토 2010》, 아시아 최초 포토페어 3회 맞아

스페인 현대사진전과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특별전 개최

포토넷에서 주관하는 사진 전문 페어 《서울포토 2010》이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08년에 이어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페어의 ‘갤러리 섹션’에는 사진 작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의 22개 갤러리가 참여하여 1,2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토넷 리뷰’ 섹션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 작가 40여 명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소개된다. 또한 새롭게 조명된 ‘RAWVISION, 예술과 경영의

상호 고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CEO 특별 사진전》(사진 한용의)도 개최된다.

올해는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주빈국으로 스페인을 초대해 아시아 최초로 스페인의 현대사진작가 10인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서울포토 2010》에서는 일본의 사진 전문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하여 일본의 사진작가 4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며, ‘아티스트 초

대’ 섹션에서는 일본의 대표 작가인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대규모 특별전이 열린다. 이외에도 사진과 관련된 강연과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안필연 개인전

모두가 편안한 세상을 위해 과학기술이 힘을 발휘할 때



설치미술가 안필연이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홍콩 사이언스파크 내 오디토리엄 글래스월에 대형 터널형태의 작품 《ADAMAO》를 설치했다. 종이상자를 재료로 만든 이 다각형 구조물은 길이 54m, 폭 2.3m, 높이 1.8m로 내부가 과자포장용 은박지로 덮여 있어 내부로 들어서면 마치 거대한 만화경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곳저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착시현상을 겪게 된다. 또한 10m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빛의 색 전환 등 예술과 기술의 접목 시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장애인의 시선에서, 다수의 비장애인의 편의만을 고려한 불편한 사회 현실을 빚어 표현한 것으로 작가는 ‘지속 가능한 과학’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이 작품에 자연 환경 개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어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안필연은 서울대 조소과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시티칼리지 건축대학원에서 도시계획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14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현재 안필연조형연구소 소장이며 경기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